

주택·건설·건축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와 춘천시 등이 후원하는 '강원에코홈페어2016-주택·건설·건축박람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도내 주택·건설·건축 관련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를 비롯해 18개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신공법·신기술이 설치된 부스를 둘러보고 자치단체에 적용할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26일 개막 ... 홍보 효과 최고

강원에코홈페어2016은 26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문을 연다. 개막식은 오후 2시 호반체육관 특설 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주택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주택·건설업계에서 생산하는 주택 소품 및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강원에코홈페어는 도내 유일의 주택·건설·건축박람회로 녹색성장의 중심, 강원도의 녹색건설 및 건축자재 소개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품 대상 품목은 △건축자재(바닥재·내장재·지붕재·외장재·구조재·도장재·방수·단열재·

'강원에코홈페어2016-주택·건설·건축박람회' D-7



오는 26일 춘천서 개막 ... 녹색건설·건축자재 소개의 장
지난해 상담 총 3천여건 ... 올해 관람객 1만명 이상 전망
현장서 계약까지 이뤄져 신기술·제품 홍보에 안성맞춤

방음) △가구 및 인테리어(인테리어 가구·생활가구·사무용 가구·전통가구·DIY가구·사물함·가구 하드웨어·벽난로·침장류·블라인드·스크린·인테리어 소품) △전원 주택 및 주택정보 분야(목조주택·스틸하우스·펜션·모델하우스·실외 리모텔링)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분야(가전·도어록·홈시큐리티·홈네트워크시스템) △조경 및 공공시설 분야(실내 조경·잔디·펜스·정자·놀이시설·수목보호대·옹벽) △목실 및 주방 분야(위생도기·육조·샤워기·샤워부스·욕실가구·스토브·사우나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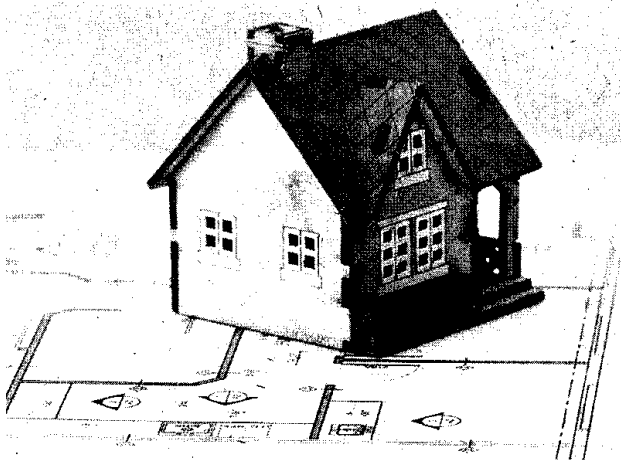
시스템부속기구) 등이다. 지난해에는 상담만 총 3,000여건에 달했으며 현장에서 이뤄진 거래는 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담 실적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역 제품도 수도권 제품만큼 우수하고 기술력도 갖췄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지자체·업체·주민 소통의 장

이번 박람회는 도내 홈인테리어 관련 우수제품을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전시회로 현장에서 계약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 최고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각 업체 간 교류와 업무협약, 판매, 계약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건설·건축인들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 가정에서 관심을 갖는 인테리어 관련 자재 및 공예품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도 가능하다. 박람회 사무국은 현재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막바지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일 내로 참가업체를 최종 확정 후 곧바로 부스 제작에 들어간다.

강원에코홈페어2016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홈페이지(<http://www.ecohomefair.kr>)에서 출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팩스((02)6499-1650)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박람회 사무국(070-7098-8388)으로 하면 된다.

하위윤기자



軍 2억이하 공사 지역 입찰 늘린다

【화천】화천지역 주둔 3개 사단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억원 이하의 부대 시설공사의 관내 입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3개 사단 재정참모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경기 부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주둔 부대들이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화천군-3개사단 간담회 “경기 부양 공동노력”

우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최근 청탁금지법 등의 여파로 주민들의 고통이 큰 만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2억원 이하 일반공사 발주시 화천지역 업체 대상 입찰을 확대하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지

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또 시설공사 이외에 각종 소모품 구입도 화천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부대별 회식을 장려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은 조만간 각 부대에 화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머무르며 운영 중인 토목과 건설자재, 건축, 전기 등 업종별 업체의 리스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최 군수는 “각 부대에서 화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민·관·군이 뜻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했다. 정래석기자

춘천~속초 고속철 본궤도... 2019년 첫삽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등 내년 예산안에 첫 반영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첫 관문을 넘은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반영하면서 사업추진이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춘천~속초 고속철도,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부산사상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 인천·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이다.

이 중 내년 예산안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춘천~속초 고속철도.

총사업비가 2조원을 웃도는 이 사업은 춘천~속초를 잇는 연장 93.9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65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19년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춘천~속초 고속철 본궤도... 2019년 첫삽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상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 등 '금물살'

〈부산〉

지난 2011년과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도봉산~옥정 복선전철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예산을 무난하게 확보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 구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337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6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부산사상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이어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서 금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총 4400억원을 들여 부산사상 노후공업지역의 도로, 지하차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총사업비가 각각 1756억원, 533억원 규모의 다산~왜관 광역도로사업과 흑산도

항 건설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28억원, 29억4800만원이 책정됐고 총 6502억원이 투입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내년 9억1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로 굵직굵직한 신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나마 이들 사업이 예산 반영에 따라 본격 추진되면 물량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